



정교회주보

제2598호

2026년 10월 11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바울로 사도의 제3차 선교여행은 에페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까지 이어진 여정이었다.



제7차 세계 공의회 참석 교부들 주일 성 필립보 사도

(제2조 • 조과 복음 8)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2조 부활 찬양송 81
- 성 교부들 찬양송 85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가송 85
- 사도경 : 디도 3,8~15 (봉)539
- 복음경 : 루가 8,5~15..... 124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하느님이시여, 주의 크신 자비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40회] 안티오키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바울로의 제3차 선교여행은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갈라디아와 프리기아 지방을 두루 다니며 제자들의 믿음을 굳세게 한 뒤 에페소에 이르렀다.(사도행전 18,23-19,1)

바울로는 에페소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고, 하느님의 말씀은 아시아 지방 여러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사도행전 19,8-10) 이후 그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방의 교회들을 돌아보며 신자들을 격려하고,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나눔도 준비하였다.

귀환길에 바울로는 밀레도스에서 에페소 교회의 원로들과 작별하며, 성령의 인도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했다.(사도행전 20,17-38) 띠로와 가이사리아에서 고난을 예고 받았지만, 그는 두려움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워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사도행전 21,1-17)

이 여정은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의 순종을 통해 복음을 확장한 거룩한 여정이었다.

다시 밟은 양구 땅

우종현 안토니오스 대신부



강원도 양구는 사실 제게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최전방에서 군 복무를 하며 반복되는 고된 훈련과 매서운 추위, 열악한 환경을 견뎌야 했기 때문이었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전역한 뒤에는 그곳을 다시 찾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 그 양구에 성당을 세운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복무했던 부대에서 자동차로 삼십 분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성당 공사를 돕고 선교 봉사를 하며 그곳을 오가면서 마을 사람들과 가까워졌고, 어느새 그 땅에도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세워진 양구 성당에서 할 일이 많다는 것이 오히려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린 시절, 소설 『상록수』를 읽으며 시골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동경했던 마음도 어찌면 다시 살아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양구 성당의 초대 주임 신부로 자원하여 부임했습니다.

처음 마주한 현실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곳에서의 시간은 제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과 사제로서 주어진 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군인으로 양구에 있었고, 선교를 위해 다시 그곳을 찾았으며, 마침내 서품을 받고 스스로 그곳에 가겠다고 청했으니까요. 한때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던 땅이 사제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자리가 되었지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우연이라고만 생각했던 일들이 서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길을 언제나 주님께서 이끌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의 의미를 곧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고, 피하고 싶은 고비를 맞기도 하지요. 그러나 매 순간 조금하게 답을 찾기보다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앞날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속으로 제 할 일을 계획해도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다.”(잠언 16,9) 아멘

만일 당신이 될 수 없다면...

더글러스 말로치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만일 당신이 언덕 꼭대기의 소나무가 될 수 없다면
계곡의 덤불이 되십시오.
하지만 작은 시냇가에 있는 최고의 덤불이 되십시오.
만일 당신이 나무가 될 수 없다면 덤불이 되십시오.

만일 당신이 덤불이 될 수 없다면 한 줌의 풀이 되십시오.
그리고 길가를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드십시오.
만일 당신이 큰 물고기가 될 수 없다면 그저 농어가 되십시오.
하지만 호수에서 가장 생기 넘치는 농어가 되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선장이 될 수는 없으며, 누군가는 선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큰일도 많고, 작은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고속도로가 될 수 없다면 그저 오솔길이 되십시오.
만일 당신이 해가 될 수 없다면 별이 되십시오.
당신의 성공과 실패는 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얼 하든지, 그 자리에서 최고가 되십시오!

* 더글러스 말로치: 미국의 시인, 1877-1938. '별목꾼의 시인'으로 알려졌다.



■ 서울 성당 음식 축제 개최

오는 18일(주일), 성찬예배 후 음식 축제가 열립니다.

음식 축제는 우리 주변에 정교회를 알리는 선교적 차원의 행사입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준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정교회 선교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합시다.

■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그리스 출신의 다마스키노스 불리오티스 수도사제께서 지난 9월 28일 안식하셨습니다.

고인은 1990년대 초 한국에 선교사로 오셔서 소티리오스 대주교와 함께 부산 성당의 선교 활동에 힘쓰셨습니다. 고인께서 평안히 안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국제 심포지엄 개최

우리 대교구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 심포지엄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스 - 신학자, 철학자, 신비가」 (Saint Gregory of Nyssa - The Theologian, the Philosopher, the Mystic)가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11월 2일(월) 오후 2:30-6:00

(심포지엄 종료 후 식사 제공)

- 장소: 서울대학교 교수회관(65동)

■ 일본 사목 방문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와 크리스토퍼 온커 보제는 일본 오키나와와 도쿄를 사목 방문했습니다.

2일 저녁에는 오키나와 미군기지 내 성 니콜라스 소성당에서 만파를 집전했으며, 대주교는 '기도'를 주제로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3일에는 신자 가정에서 성찬예배를 집전하고 신자들과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4일에는 도쿄의 성 알반 성공회 성당에서 성찬예배를 집전했으며, 크리스토퍼 보제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참석한 신자들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전주 성모안식 성당 세례성사

전주 성모안식 성당에서는 지난 3일(토), 정종혁 일라리온 신부에 의해 세례성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이번 성사로 여인애 리디아, 권순형 멜기세덱, 전진석 코즈마스 교우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 가평 수도원, 한국 정교회 24인 수호성인 축일을 보내며

지난 3일(토), 24인 수호성인 축일을 맞아 많은 신자가 참여한 가운데 우종현 안토니오스 대신부, 로만 대신부, 조경진 예레미야 신부, 임종훈 안토니오스 신부의 집전으로 조과와 성찬예배가 거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소티리오스 대주교 묘소에서 추도식을 통해 고인을 추모했고, 사랑의 오찬을 나누었습니다.

전날(2일)에는 우종현 안토니오스 대신부 집전으로 축일 대만파와 아르토클라시아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축일 맞이 위해 애써주신 백은영 아가티 수녀와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